

노원마을 숲 가꾸기 체험환경 프로그램

Civil Participation Style Forest-environment Education in Nowon

김재현

(건국대학교 산림환경학과)

I. 마을 숲 가꾸기 운동의 시작배경과 방향성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에서 마을 숲 운동을 시작한 것은 2000년 5월부터이다. 우선 시범적으로 170여개의 아파트 단지와 약60만명이 거주하는 노원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확산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먼저 마을 숲 운동에서 왜 명칭을 “마을 숲 가꾸기”라고 하였는지 배경설명을 하고자 한다. 우리의 역사·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을”이란 사람들이 모여 거주하고 相互扶助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공유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단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 공동체는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획일화된 경제개발로 인해 독자적인 특성과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사회문제와 자연환경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점은 도시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 표현되는 것이 단절된 아파트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기초로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에서는 마을 숲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마을 숲 가꾸기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자원은 지역주민이 직접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나무나 숲은 개인의 사유지 내에 있더라도 지역주민의 공유 재산적인 성격이 강하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지역공동체 단위로 자체적인 규약을 만들어 지역의 공동재산인 나무나 숲을 보호하고 관리해 왔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지역자원의 관리가 모두 공적기관의 몫이 되어 버리고 말았고, 이러한 행정기관에 의한 관리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직접 나서 행정기관과 함께 지역의 녹지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마을 숲 가꾸기는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운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요즘 시민사회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시민운동은 있으나 시민은 없다라는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비판의 소리를 넘어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어디에 와있으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작년에 실시한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새로운 주체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 시민이 숲과 관련하여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먼 곳이 아닌 가까운 곳의 생활환경개선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의 시민운동이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큰 것부터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셋째,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개인의식의 변화와 다양한 계층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마을 숲 가꾸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나무와 숲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운동부터 출발하여 점차 이해를 높이고,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 및 자주형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운동으로 발전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환경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마을 숲 가꾸기에서는 “모여서, 놀고, 배운다”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숲 가꾸기 교실, 숲 속 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한다.

넷째, 지자체, 기업 등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활동의 폭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불신과 반목이 팽배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행정과 주민과의 관계는 그 골이 상당히 깊게 패어 있다. 추진방법이나 서로의 주장이 달라서 생긴 골이지 지역발전을 목표를 상실해서 생긴 골은 아니라

고 생각된다. 추진방법이나 서로의 주장을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모두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파트너십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II. 숲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1) 조사개요

유한킴벌리의 지원을 받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새로운 주체형성에 관한 연구”의 제목으로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서울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2000년 2월 21일부터 3월 8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마을 숲 가꾸기 운동”의 추진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에 설문조사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하고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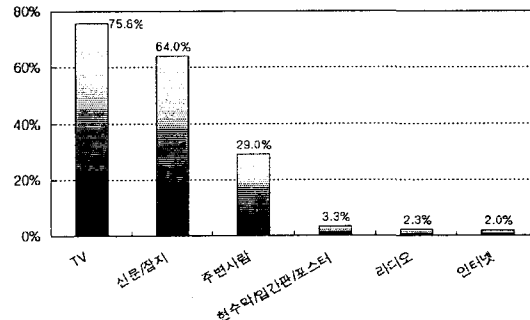
설문조사는 첫째, 숲 가꾸기에 관한 시민의 참여 의식 파악, 둘째, 숲 가꾸기 불런티어 참여에 있어서 시민의 요구 파악, 숲 가꾸기 시민참여에 대한 수요예측, 숲 가꾸기 시민참여에 대한 방향제시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 설문지의 작성과 결과분석은 건국대학교 산림자원학과에서 담당하고,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시내의 16세부터 59세 일반인 남녀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2) 산림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① 숲에 대한 지식의 습득 경로

숲에 대한 지식은 TV가 75.8%를 통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가 64.8%로 나타나 숲에 대한 지식 전달에 있어서 매스 미디어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환경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숲에 대한 지식이 대중매체나 주변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얻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로는 결코 체계적이면서 심층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환경교육이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사회교육의 형태가 요구된다.



<그림 1> 숲에 대한 지식의 습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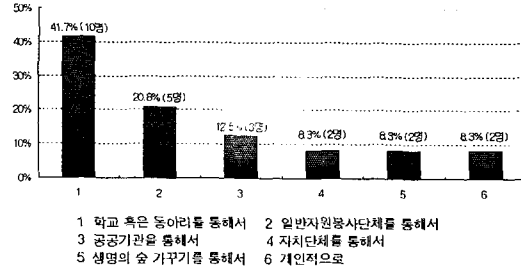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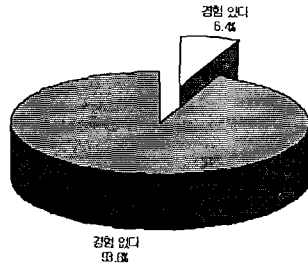
② 숲 가꾸기 불런티어 참여의식

숲 가꾸기 불런티어 참여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경험이 있는 사람은 24명으로써 6.0%에 지나지 않으며, 94.0%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숲 가꾸기 참여경험이 있는 24명 중에서 10명(41.7%)은 학교 혹은 동아리를 통해서 참여해 가장 중요한 참여경로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현재의 숲 가꾸기 불런티어의 참여실태는 숲 가꾸기 불런티어의 실시가 1998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아직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참여방법도 자발적이라기보다 동원형태의 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 국민들에게 숲 가꾸기 체험활동을 확산시킨다고 할 때, 개별적인 접근이 아니라 단체 또는 공동체를 단위로 한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③ 숲 체험 참여 의식

숲 가꾸기 불런티어 내용에 따른 참여의식은 “전혀 관심 없다 - 적극 참여하겠다”로 5점 척도로 조사



<그림 2> 숲 가꾸기 경험

하였다. 전반적으로 숲 가꾸기 불런터어 참여에 대하여 관심이 낮다는 것이 파악되었으며 나무심기에 있어 참여 의식이 비교적 높은 것은 “숲 가꾸기는 나무심기다” 라는 동일시하는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또한 약간의 전문지식과 경험만을 필요로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참여도가 더욱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 숲 가꾸기 참여 형태

<표 1> 숲 가꾸기 내용에 참여의식

참 여 내 용	전혀 관심없다	그다지 관심없다	보통이다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	적극 참여하겠다
①나무심기	13.0	23.8	17.5	39.3	6.5
②숲속의 쓰레기 수집	21.0	24.0	15.0	32.0	8.0
③도시주변의 숲조성 참여	15.5	27.5	17.5	29.3	10.3
④자연관찰 학습원 조성에 참여	21.8	23.8	17.5	27.0	10.0
⑤자연생태 현장조사 참여	20.3	31.0	12.8	29.5	6.5
⑥야생동식물 보호활동	22.5	22.8	19.8	26.0	9.0
⑦숲 가꾸기에 관한 일반인 계몽에 참여	20.3	29.5	15.8	29.3	5.3
⑧산림청/지자체의 산림시책에 대한 감독(모니터링)	22.5	33.0	14.8	24.0	5.8
⑨숲 가꾸기 국제교류활동참여	23.3	29.5	18.8	22.0	6.5
⑩숲관련 시민단체의 사무지원	24.3	33.0	14.5	22.8	5.5
⑪가지치기, 넝쿨제거, 풀베기, 슈아베기	28.0	30.8	13.5	21.3	6.5
⑫숲 가꾸기 모금활동에 참여	26.8	31.5	15.0	20.3	6.5
⑬숲 안내요원	24.3	33.0	16.5	17.3	8.8

④숲과의 밀접성

● 숲의 유지관리 활동

“쓰레기 줍기 활동”은 “자주한다”, “대단히 자주한다”는 응답이 22.0%로 다른 유지관리 활동에 비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지치기, 넝쿨제거, 풀베기, 슈아베기 활동”, “병충해 구제활동”, “비료주기 활동”은 75% 이상이 전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숲의 유지관리 활동에 자발적인 참여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숲의 생태적 유지 활동

“나무심기” 및 “야생 동식물 보호 활동” 등 숲을 생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활동은 각각 72.3%, 72.5%가 전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자주 하고 있는 시민은 10% 이하에 지나지 않았다.

● 숲을 통한 교육활동

숲을 통해 “야생조류나 곤충의 관찰”, “자연 환경교육장으로 활용”은 각각 65.8%, 67.0%가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하는 시민은 10%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 휴양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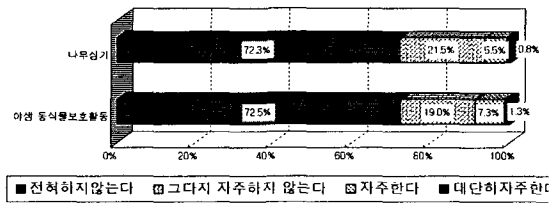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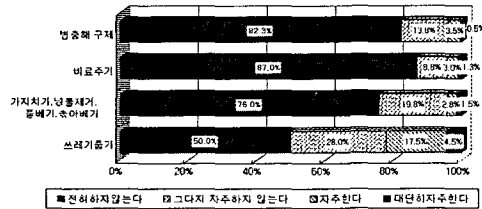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오락활동’, ‘사진촬영이나 그림 그리기’, ‘휴양림 방문이나 야영’과 같이 단순히 즐기는 휴양 활동보다는 ‘야수뜨기’, ‘산책이나 등산’과 같이 건강을 위한 보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숲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숲을 매체로 하여 “산촌 주민과의 교류”활동은 75.5%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교류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은 7.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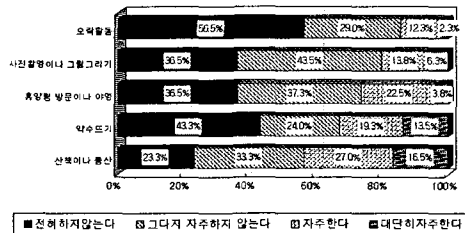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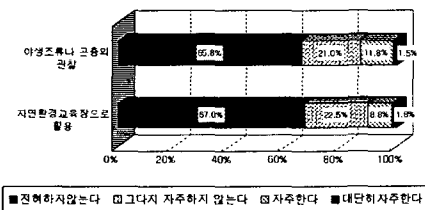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에서 서울 시민은 일상적으로 숲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보건 휴양활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었으며, 숲을 가꾸는 유지 관리 활동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숲 관련 시민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환경교육의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또한 지금의 숲에 대한 시민의식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접근 방법에 있어서도 단순참여부터 유도하여 산림생태적 측면에서 점차 단계를 높여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생활개선운동의 일반으로 마을 숲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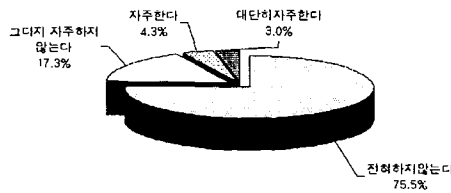
<그림 4> 숲의 유지관리 활동

<그림 5> 숲의 생태적 유지활동



<그림 6> 숲을 통한 교육활동

<그림 7> 숲에서의 보건휴양활동



<그림 8> 숲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III.. 시민참여에 의한 녹지관리의 필요성과 방향

1) 시민참여에 의한 녹지관리의 필요성과 조건

우리나라의 도시 내에 분포하는 녹지관리의 실태를 보면, 시민참여는 배제된 행정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형태의 녹지관리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도시내의 녹지가 가지는 다면적 기능을 둘러싼 대립을 해소할 수 없으며, 둘째, 녹지관리문제를 종합적인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접근

하기가 어려우며, 셋째, 녹지관리의 엄격한 규제와 토지이용의 제한을 넘어서기가 어렵다. 또한 시민참여를 통한 녹지관리를 통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극복할 수도 있다.

시민참여에 의한 녹지관리의 추진에 있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첫째, 환경개선활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아름답게 하는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둘째, 자원봉사 참가를 바탕으로 실제로 맘을 흘리는 활동의 실천과 배움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야하며, 셋째, 주민, 기업, 행정을 포함한 많은 지역 주체의 파트너십으로 운동을 추진하여야 하며, 넷째, 운동을 기획·조직하고, 지역의 참가를 유도 할 수 있는 상근 직원의 확보해야 한다.

2) 시민참여 유도의 접근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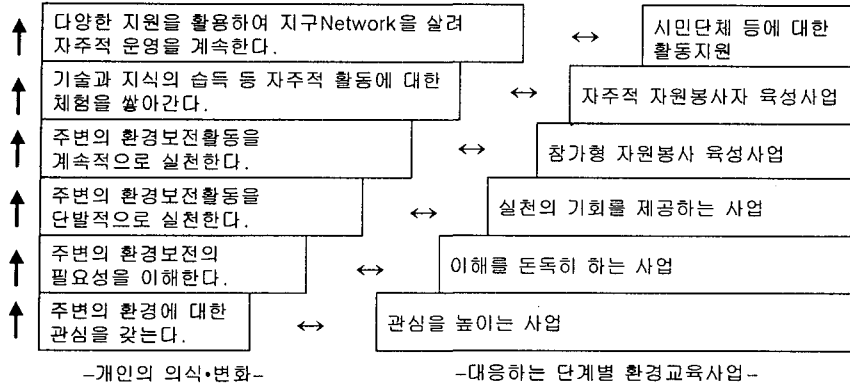
시민의 의식수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내용이나 접근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녹지관리에 있어 시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해 월콕스는 다음 5단계의 접근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단계적인 접근방식은 실제로 시민참여에 의한 녹지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항목이다.

- ①홍보 :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가장 간단한 주민참가의 방식
- ②협의 : 계획담당자가 복수의 선택안을 작성하여 주민과 협의(협의 후에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가 중요)
- ③공동결정 :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
- ④공동실행
 - : 계획결정뿐만 아니라 계획의 실행까지 주민과 함께 하는 방식
 - : 다른 이해관계자 사이에 협력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
 - : 공통의 언어, 이상 및 실행방법이 필요
 - : 계획목적에 관한 공동실행자 간의 합의뿐만이 아니라 주민과의 상호 신뢰관계도 중요
- ⑤주민주도 : 지역주민이 주체적인 계획입안 및 실행의 책임을 지고, 행정당국은 뒤에서 주민을 지원하는 방식

이상에서 기술한 다양한 방식 중에 어떤 것이 최적인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함으로서 보다 많은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세타가야 트러스트협회”의 주사인 고이데(小出)씨는 “환경교육의 성과에 의해 예상되는 개인의 의식태도변화 모델”에서 개인의 의식변화에 따른 환경교육사업의 대응형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델은 “노원마을 숲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많은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 대체적으로 노원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의식수준은 주변의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나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한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연령분포가 3-40대에 집중하고 있어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노원마을 숲 가꾸기에서는 녹지실명제에 기초한 생활주변에 있는 나무 알리기 위한 나무이름표 달아주기를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그림 9> 환경교육의 성과에 의해 예상되는 개인의 의식태도변화 모델

IV. 노원 마을 숲 가꾸기 운동의 활동현황

1) 운영체계 및 원칙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의 숲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원 마을 숲 가꾸기”는 2000년 5월부터 시작되었다. 마을 숲 가꾸기 운동을 통해서 지역주민 스스로가 생활주변의 나무들을 알고 방치된 숲을 관리하며, 더불어 생활 주변의 숲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원 마을 숲 가꾸기의 운영체계는 14명의 운영위원과 생명의 숲 담당간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숲 해설가협회 회원들의 유료참여와 건국대학교 산림환경과학과 학생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각각의 역할을 보면, 운영위원들은 전체 활동의 운영에 관여함과 아울러 기존의 주민들과의 연계관계를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활동을 홍보하거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생명의 숲 간사와 상근 자원봉사자는 활동을 기획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수목조사)와 그 외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숲 해설가협회 회원은 행사당일 주민들에게 나무의 특징들에 대해 설명하여 주민들의 나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활동에 필요한 재료는 노원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무 알기 행사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나무 이름표를 제작해 주거나 녹지실명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일초등학교 학생들의 갈매근린공원에서의 자생화 환단 만들기에 필요한 자생화와 퇴비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 외 숲해설가에 대한 사례비 등을 포함한 필요 경비는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에서 부담하고 있다. 기타 조사활동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노원마을 숲 가꾸기의 운영위원 및 실무활동가

이름	소속
김재현	건국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운영위원장)
이덕수	건국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지성희	성공회 부재(전 노원나눔의 집)
백광현	노원방송&노원신문기자
임채란	숲 해설가협회
김은경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성환	서울시의회 문화교육보건의사회위원회
김태선	서울시 노원구의회
김생환	서울시 노원구의회
우원식	서울시 노원구 중계2동
송재혁	클럽대표
이 훈	보습학원 운영
서수일	지역주민(숲교실 수료)
김순희	지역주민(숲교실 수료)
김시내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간사
박지혜	상근 자원봉사자(건국대학교 산림경영연구실)

마을 숲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몇 가지 운영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직적인 조직구성을 지양하고 수평적 체계로 운영한다.
 - 운영위원회만 두고 있으며,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주민을 운영위원으로 영입한다.
 - 마을 숲 운동의 확산 정도를 평가하여 조직체계를 갖추어 간다.
- 주민의 눈 높이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한다.
- 크게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또는 지역 내 기업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 지자체의 나무 이름표 등 재료비 부담
 - 교보생명 노원지점, 마들역 노원 문화의 집의 장소제공 등

2) 주요활동 내용

- 나무 알기 및 나무 해설
 - 월 1-2회 각 아파트 단지별로 순회하면서 실시
 - 이름표에 설명을 기입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함
- 주변 숲 탐방 : 봄, 가을에 각 1회씩 실시(야생조류, 초본 전문가 참여에 의한 생태적 숲 해설)
- 단지 내 조경수 관리 : 연 2회 생활거주지 주변 수목의 진단 및 관리
- 연구조사
 - 주민참여에 의한 생활주변 숲 관리 활성화 방안
 - 자료집 발간을 위한 기초조사
 - 도시림을 대상으로 한 자연환경교육의 현황과 효과분석
- 지역주민 양성프로그램
 - 마을 숲 교실 개설을 통해 주민 중심의 중간지도자 양성 및 네트워크형성
 - 주제별 특강을 통해 주민의 관심 유도
- 지역단체와 연대사업
 - 서울시 녹지관리 실명제 운영과 연계 : 갈말근린공원관리
 - 중랑천 사람들과 연계하여 물살리기 운동에 참여 : 나무심기, 수목조사 등
 - 학교 숲 가꾸기 사업과 연대하여 추진

① 2000년도 활동내용

● 나무이름표 달아주기 행사

- 제1차 나무이름표 달기 행사(5월 21일 오후 2-4시, 상계12단지)
 - 참가자 : 지역주민 약70명(어린이 포함), 자원봉사자 10명(건국대 산림자원학과), 숲 해설가 2명, 운영위원 5명, 행사보조원 6명
- 제2차 나무이름표 달기 행사(6월 24일 오후 3-5시, 상계2단지)
 - 참가자 : 지역주민 약80명(어린이 포함), 숲 해설가 2명, 운영위원 4명, 행사보조원 3명
- 제3차 나무이름표 달기 행사(7월 29일 오후 3-5시, 상계4단지)
 - 참가자 : 지역주민 약80명(어린이 포함), 숲 해설가 2명, 운영위원 5명, 행사보조원 4명
- 제4차 나무이름표 달기 행사(8월 23일 오후 3-5시, 갈말근린공원 및 11단지)
 - 참가자 : 지역주민 약80명(어린이 포함), 숲 해설가 3명, 운영위원 4명, 행사보조원 5명
- 제5차 나무이름표 달기 행사(10월 7일 오후 3-5시, 하계동 청구APT)
 - 참가자 : 지역주민 약120명(어린이 포함), 숲 해설가 3명, 운영위원 4명, 행사보조원 1명
- 제6차 나무이름표 달기 행사(10월 18일 오전 10-12시, 상계동 원암유치원)
 - 참가자 : 유치원생 200명, 숲 해설가 6명, 운영위원 3명
- 노원의 숲 가을 탐방 (11월 5일 오후 1-3시, 수락산)
 - 참가자 : 지역주민 약100명, 숲 해설가 4명

② 2001년도 활동내용

● 2001년도 추진일정

<표 3> 2001년도 노원마을 숲 가꾸기 추진일정

월	일 정	시 간	비 고	진행상황
3월 29일	상계 3단지 1차 수목조사 사전답사	4시~6시	이름표제작	√
4월 3일	상계 3단지 2차 수목조사 사전답사	4시~6시	이름표제작	√
4월 5일	노원 마을 숲 가꾸기 식목행사		교수님참석	√
4월 6일	노원 구청에 이름표제작 의뢰			√
4월 7일	상계 3단지 1차 수목조사	10시~3시	1동~14동	√
4월 14일	상계 3단지 나무 알기 행사	2시~4시	1동~14동	√
4월 20일	상계 3단지 2차 수목조사	10시~3시	15동~26동	√
4월 28일	상계 3단지 나무 알기 행사	3시~5시	15동~26동	√
5월 4일	상계 15, 16단지 수목조사	10시~3시		√
5월 12일	상계 15, 16단지 나무 알기 행사	3시~5시		√
5월 18일	노원 마을 숲 가꾸기 특강	2시~4시	마들역	√
5월 25일	중계 1단지 수목조사	2시~4시		√
6월 3주(6.16)	중계1단지 나무알기 행사	3시~5시		√
6월 5주(6.30)	나무알기 행사(비로 연기)			
7월 2주(7.14)	나무알기 행사			
7월 3주(7.20)	마을 숲 가꾸기 특강 -문재가꾸기			
8월 2주(8.10)	수락산 산행 및 자연보호운동			
8월 3주	마을 숲 속 학교			
8월 5주(9.1)	나무 알기 행사			
9월 2주(9.15)	나무알기 행사			
9월 3주(9.14)	마을 숲 가꾸기 특강 -난 키우기			
9월 4주(9.29)	나무알기 행사			
10월1주(10.5)	마을 숲 체험(불암산)			
10월3주(10.20)	나무알기 행사			
11월1주(11.3)	나무알기 행사			
11월2주(11.9)	마을 숲 가꾸기 특강 -겨울철 실내식물 관리			

● 나무 알기 및 나무 해설

- 제1차 나무 알기 행사(4월 14일 2시~4시, 상계6동 주공아파트 301동~314동)
 - 참가자 : 지역주민 50여명, 숲 해설가 2명, 운영위원 5명, 간사, 자원봉사자 3명
 - 상계 주공 3단지 이름표 사용량 총-91개
- 제2차 나무 알기 행사(4월 28일 3시~5시, 상계6동 주공아파트 315동~326동)
 - 참가자 : 지역주민 30여명, 운영위원 4명, 간사 2명, 자원봉사자 4명, 전문가 1명
 - 상계 주공 3단지 이름표 사용량 총-175개
- 제3차 나무 알기 행사(5월 12일 2시~4시 30분, 상계근린공원과 상계초등학교 일부)
 - 참가자 : 지역주민 200여명(상계초등학교 명예교사 어머니회), 숲해설가 2명, 전문가 2명, 운영위원 8명, 간사 2명, 자원봉사자 2명
 - 상계8동 주공아파트 15,16단지 및 상계근린공원 이름표 사용량 총-323개
- 제4차 나무 알기 행사(6월 16일 3시~5시, 중계주공 1단지 및 중원초등학교 일부)
 - 참가자 : 지역주민 50여명, 운영위원 7명, 숲해설가 2명, 간사 2명, 자원봉사자 2명
 - 중계 1단지 이름표 사용량 총-77개

● 동일초등학교 학교 숲 가꾸기 및 숲 교육

- 생명의 숲 학교 숲 사업 지원신청 및 확정(별첨자료 참조)
- 가족 단위의 숲 속 문화체험 참여(5월 27일, 중미산)
 - 참가자 : 동일초등학교(20가족)와 상원초등학교(20가족) 학부모와 학생, 운영위원 2명
 - 숲과 문화연구회 산림청 사업에 참여
- 동일초등학교 교내 나무 알기 행사(6월 13일 1시30분~3시, 동일초등학교)
 - 참가자 : 4-6학년 학생대표 60여명, 운영위원 3명, 자원봉사자 1명, 동일초등학교 어머니회
- 동일초등학교 산림환경교육
 - 일시 : 6월 25-28일
 - 대상 : 6학년 7개반(실과시간 활용)
 - 교육내용 : 산림환경에 대한 이론교육 1시간, 근린공원 내 자생화화단 만들기 1시간

● 노원 마을 숲 가꾸기 교실

노원 마을숲 가꾸기에서는 1월 8일부터 3월 5일까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숲 교실을 개최하였다. 교육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시간씩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표 4>와 같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된 배경에는 점차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 숲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지역주민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실시하였다. 또한 마을 숲 운동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야외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숲 교실은 겨울철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숲 교실에서 추구하는 교육목적은 첫째, 숲과 나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숲 해설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숲과 나무의 기본적인 생리와 생태적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숲 가꾸기와 목재 사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며, 셋째, 자신들의 토대인 생활주변의 숲과 나무를 주민참여를 통해 자발적으로 관리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두고 실시하였다. 그리고 교육의 방향은 첫째, 강의한 내용이 전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쉽고 재미있게 하며, 둘째, 배우는 사람이 바로 주체가 된다는 것을 주지하도록 하며, 셋째,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내용과 연결하여 알려 주는데 노력한다고 하는 것에 두었다.

한편, 숲 교실을 개최하는데 있어 교보생명에서 무료로 강의실을 제공하여 주었다.

그리고 자체적인 평가에 의하면 숲교실은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의도하였던 바와는 달리 많은 주민이 참여하지 못하였다. 처음 계획단계에 있어서는 30명을 모집

을 계획하였으나, 꾸준히 참여한 사람은 10명이 되지 못하였다. 실제로 2/3 이상 참석한 사람에게만 수료증을 주었는데 받은 사람은 7명에 불과 했다. 둘째, 수료한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유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 중 두 사람은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고, 두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나무 알기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두 사람의 역할이 적지는 않았으나, 그 외 참여한 사람들에 지속적인 참여유도를 못하고 있다.

<표 4> 노원마을 숲가꾸기 교실 프로그램

번호	날짜	교육 내용	강사
1	1월 8일	♣ 개교식 ♣ 우리와 함께 한 숲	김재현 교수(건국대)
2	1월 11일	♣ 우리 산을 바라보자!	전영우 교수(국민대)
3	1월 15일	♣ 나무의 생김새를 알아보자	박우정 박사(건국대)
4	1월 18일	♣ 나무가 살아가는 이야기	박우정 박사(건국대)
5	1월 29일	♣ 햇빛을 먹고사는 나무	이덕수 박사(건국대 연구원)
6	2월 1일	♣ 나무의 결혼	이덕수 박사(건국대 연구원)
7	2월 5일	♣ 우리 숲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을까?	이유미 박사(광릉수목원)
8	2월 8일	♣ 우리에게 흙이 주는 의미	박 현 박사(임업연구원)
9	2월 12일	♣ 광릉 숲 탐방	임채란 이사(숲해설가협회)
10	2월 15일	♣ 사라져 가는 우리의 숲	김재현 교수(건국대)
11	2월 19일	♣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나무를 썼을까?	허남주 회장(광릉숲보전회)
12	2월 22일	♣ 이제는 올바르게 알고 행동하자!	이강오 부장(생명의숲)
13	2월 26일	♣ 숲에 대해 우리가 모르던 것!	홍혜란 처장(생명의숲)
14	3월 2일	♣ 이제 숲에서 놀자!	임채란 이사(숲해설가협회)
15	3월 5일	♣ 내 손으로 직접 가꾼 나무 수료식	

V. 마을 숲 운동의 과제

작년부터 진행해온 노원 마을 숲 가꾸기 운동은 우리나라에서는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단위의 생활환경개선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을 주민들과 언론의 반응(별첨 자료 2)을 바탕으로 평가해 보면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우리 단지에서도 행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을 보면, 주민들의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래에서 제시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철저한 내부적인 분석과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지혜와 의견을 모음으로서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으로부터의 신뢰관계 구축이라고 생각된다.

- 지역성을 전제로 한 운동이기 때문에 주관단체(생명의 숲)와의 관계설정
-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직체계 정비와 프로그램개발
-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 강구
 - 회원제 실시
 - 지역 기업의 후원 등
- 행정기관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
- 지역 내 녹지공간의 특성에 따른 관리매뉴얼 작성 및 관리기술체계 수립

VI. 산림환경교육에 대한 제언

노원마을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얻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산림환경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산림환경교육이 태동단계에 있으며, 아직까지 정형화된 사회교육 또는 정규교육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환경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의 역할은 강조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산림환경에 대한 개념정립부터 출발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림환경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국민의 의식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일 것이다. 국민의식의 검증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의 경제성, 경제수준, 사회환경, 자연환경 등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는 문제제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전제로 하는 대안운동으로서 산림환경교육의 적극적인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넷째, 산림환경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림환경교육 교사의 양성과 이들이 안정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재현 (2000).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새로운 주체형성에 관한 연구보고서, 유한킴벌리.
2. 木平勇吉編著 (1997). 森林環境保全マニュアル. 朝倉書店.

<별첨 자료1>

학교 숲 가꾸기 운동 지원 신청서

기본 사항

1. 학교사항

① 학교명	동일초등학교	② 구분	국립, 공립(✓), 사립, 기타()		
③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887-7	④ 연락처	전화: 935-8225 팩스: 934-8198		
⑤ 교장	김창웅	⑥ 교직원수	69명	⑦ 학생수	1614명
		⑧ 담당교사	황길택		
⑨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학교 숲 가꾸기 참여 가능 단체 현황(시민단체, 교직원, 학부모회, 학생동아리, 기타)

단체명	인원수(명)	활동내용
동일 은행나무 동아리	26명	나무 심고 가꾸기, 거름주기, 이름표 달기
푸른숲 선도원	21명	한그루회 녹색회 소속으로 숲 가꾸기 활동
매화 사랑 어머니회	17명	자녀와 함께 학교 숲 가꾸기
동일 자연사랑 동아리	12명	학생과 함께 학교 숲 가꾸기 및 자연교육
중랑천사람들	약20명	하천과 자연식생에 대한 주민참여프로그램 및 교육
노원 마을 숲 가꾸기	약10명	나무 알기 행사 및 나무와 숲에 관한 기본 지식전달

3. 시민단체 참여동의서 첨부 : <별첨 1> 참여동의서 양식 참조

4. 학교 생활환경 현황

⑩ 부지총면적	10,604 m ²	⑪ 건축면적	1,622 m ²
⑫ 녹지면적	1,100 m ²	⑬ 연못/분수시설의 유(✓) 무	
⑭ 학교 부지의 위치	평지(✓) 비탈지() 산중턱() 산정상부() 기타()		
⑮ 학교 주변 여건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기타()		

5. 녹지환경

⑩ 주요 교목의 수와 수량

수종	수고(m) x 흉고직경(cm)	본수	수종	수고(m) x 흉고직경(cm)	본수
대추나무	5 × 3	4	향나무	10 × 5	184
잣나무	5 × 4	18	수수꽃다리	3 × 5	8
느티나무	8 × 6	9	소나무	12 × 10	10
은행나무	10 × 8	10	벚나무	5 × 3	8
단풍나무	10 × 4	11	가이즈까향나무	10 × 4	10

※별첨 - 동일초등학교 수종 및 수량

⑪ 교목 및 교화 지정 현황

교목(校木)	은행나무	교화(校花)	매화	기타	
--------	------	--------	----	----	--

응모 사항

6. 응모 배경(학교 숲 가꾸기의 필요성과 목적을 함께 기술)

<p>응모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학년도 담장제거 학교(서울시 지정)로 선정되어 그에 따른 계획적인 학교 녹화사업의 추진과 병행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주민 참여를 통한 학교 숲 가꾸기를 추진하기 위함 • 학교 내 녹지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친환경적인 학습공간을 만들고자 함 • 지역주민과 학교, 학생, 학부모가 하나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학교 주변의 지역자원(근린공원)을 활용한 자연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보다 체험적인 교육 연계를 제공하기 위함 <p>학교 숲 가꾸기의 필요성과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담장 개방을 통해 학교와 지역의 연결공간 조성 • 정서적으로 자연적 감수성이 풍부한 공간 조성 • 생태적인 자연학습공간 조성 • 지역과 학교, 학생, 학부모의 공동체 공간 조성

7. 조성을 희망하는 숲

㉘ 숲의 유형	㉙ 조성 장소	㉚ 면적(m ²)	㉛ 조성 길이(m)	㉜ 조성 폭(m)		
경계형 숲 (참고:서울시사업)	남쪽 담장 제거지 ^㉝	720m ²	80m	9m		
화목원 숲	서쪽 화단 ^㉞	80m ²	40m	2m		
학습원 숲	동쪽 화단 ^㉞	80m ²	40m	2m		
학습원 숲	서쪽 담장지역 ^㉞	100m ²	10m	10m		
참고 : 갈말근린공원 관리 및 활용						
㉜ 숲의 구조와 구성 수종		㉝ 총계				
		260m ²				
숲유형	(학습원 숲: 풍덩이의 숲)	(화목원 숲:)		(학습원 숲: 수생 비오름)		
수종과 수량	상수리	100본	벗나무	5본	부들	50본
		본	박쥐나무	5본	꽃창포	20본
		본	계수나무	5본	물달개비	20본
		본	쪽동백	5본	개구리밥	20본
		본	풀도기	5본	수련	5본
		본	수수꽃다리	5본	부레옥잠	20본
		본	산사나무	5본	물억새	20본
		본	목련	5본	택사	20본
		본	매죽나무	5본	골풀	20본
		풍덩이류			수생곤충	

㉞ 조성할 숲의 유형과 길이가 표시된 학교 전체 부지 평면도 1부 첨부

각 유형별 숲의 평면도와 입면도 각 1부 첨부

학교 전경 사진 및 숲 조성 대상 부지 사진 4장 이상 첨부

8. 조성 방법

<p>㉞ 나무심고 가꾸기 계획(누가 어떻게 심고 가꿀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또한 학교 내외에 조직된 각종 단체 활용방법도 상세하게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에는 전교어린이회 임원중심으로 나무 심고 가꾸기, 거름주기, 나무 이름표 달기 등을 연간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며, 점차 학생들의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 학교 숲과 관련된 내용을 단계적으로 정규 교과과정에 편입시켜 추진한다. •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학교 내에서 나무가꾸기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다. •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계획을 추진한다. • 학생 스스로 가꾸는 화단을 조성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가꾸도록 한다.

<p>㉗ 사업비 조달 방안 : 자체예산, 교외(동창회, 학부모회 등)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타 지원금에 의한 숲 조성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지정 학교 담장 없애기 사업추진비 1억 7000만원 • 1학년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내 기념식수 권장 • 지역 내 기업참여의 적극적인 유도

9. 학교 숲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구체적으로 기술)

<p>㉘ 학교 숲 활용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숲 내에 생태연못과 풍덩이 숲을 만들어 학생들의 자연학습 공간으로 이용 • 도로와 인접한 숲을 지역주민의 소공원으로 이용 • 갈말근린공원과 연결시켜 숲을 조성하고 지역과 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문화교류의장으로 활용
<p>㉙ 기대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수성이 풍부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교육이 가능 • 도심에서의 자연환경교육이 가능 •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 • 지역주민과 학교사이의 공동체 의식 함양 •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

10. 학교 숲 가꾸기 장기 계획(장기계획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도 학교담장 제거 및 소공원 조성 • 2002년도 학교 연못의 생태연못 조성 • 2002년도 이후 인접한 갈말근린공원과 연계하여 열린 학교 교육공간으로 활용

11. 특기 사항 (요구 사항 등)

- 인접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자기학습식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자료집 발간을 위한 예산집행 허용
- 학교 숲 조성 및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교육효과 분석을 위한 지원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지관리실명제와 연계하여 근린공원을 학생들이 관리하는 것을 학교 숲 프로그램으로 인정
- 근린공원의 일부에서 답압에 의한 토양의 고형화와 하층식생의 서식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숲을 조성하고 가꾸기에 앞서 토양개량을 위한 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활동도 학교 숲 프로그램으로 인정

학교 숲 가꾸기 운동에 상기와 같이 응모합니다.

2001년 4월 21일

학교장 김창웅 (인)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귀중

<별첨자료 2 : 언론보도 내용>

○ 대한 매일 2000년 8월 22일

“저 백일홍은 지현이 꽃, 이 나무는 제가 가꿔요”

우리 아파트에 이런 나무도 있었네”

“엄마, 제 나무가 너무 예뻐요”

지난 19일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4단지 앞 화단. 아이들이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자기 나무가 가장 예쁘다고 자랑하기에 바쁘다. 엄마들도 나무와 풀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신기해 하기는 마찬가지. 이들은 나무에 이름표를 달고 있다. 이름도 모른 채 우심코 지나치던 풀과 나무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순간이다.

이 행사는 ‘노원마을 숲 가꾸기 시민모임’이 열었다. 건국대 산림자원학과 김재현교수(36·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등 환경전문가 9명이 지난 5월 ‘우리 주변에 있는 숲부터 관심을 가져보자’란 뜻에서 이 모임을 만들었다. 우선 아파트 주변에 어떤 나무와 풀이 살고 있는지 알아보고, 나무에 이름표를 달아주기로 했다.

이날 행사는 5·6월에 이어 3번째. 매년 70여명의 주민과 아이들이 참여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 행사는 김교수와 숲 해설가협회 임채란씨 등 나무 전문가들이 주부,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나무에 대한 특성과 얽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각자 마음에 드는 나무가 있으면 즉석에서 아크릴로 만든 이름표에 나무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직접 써서 나뭇가지에 매단다. 이름표는 구청에서 마련해주고 있다. 단 이름표를 단 사람은 1주일에 한번 씩 나무를 찾아 살피고 대화를 나누도록 약속해야 한다.

주공4단지에 사는 주부 김성희(35)씨는 “아이들이 이름표를 달면서 나무에 대한 관심이 각별해졌다”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녀 생태 교육을 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기뻐했다.

김 교수는 “그간 사회적 분위기가 나무를 심는 데만 신경을 쓰고 관리는 소홀했다”며 “아파트 주변 나무 가꾸기는 새로운 환경생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민모임은 아파트주변 숲과 함께 앞으로는 불암산, 수락산 등 인근 산에서도 이름표 달기 행사를 계속한다. 또 정기적으로 ‘나무교실’을 개최, 주민들이 숲을 소중하게 가꾸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김재현 교수(450-3735).

/임창용 기자 sdragon@kdaily.com

○ 동아일보 2000년 8월 29일

“나무의 세계 너무 신기해요”

— ‘노원 마을 숲 가꾸기’ 주민들에 호응

“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는 것은 해충약을 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무엇보다 아파트를 지을 때 연못을 만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연못이 있어야 벌레를 잡아먹는 새들이 살 수 있죠.”

최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4단지에서는 주부와 아이들 40여명이 모여들어 진지하게 ‘나무강의’를 듣고 있었다. 현장 강사는 주공 10단지에 살고 있는 김재현 교수(건국대 산림자원학과).

‘숲 해설가 협회’의 회원들도 자리를 함께 해 설명력 있는 설명을 곁들였다. 이 협회는 수목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나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

아들 박정민군(8)과 함께 나온 주부 조정옥씨(36)는 “단풍나무도 중국단풍 등 종류가 많더라고요. 꽃사



사진제공 서울노원구청

과나무 느티나무 등 말로만 들던 나무들을 알게 되니 너무 재미있어요"라며 '신선한 충격'을 전했다.

다른 주부들에게도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아파트 단지 내 나무들이 새롭게 보이는 순간이었다. 도시인들에게 녹지공간은 더할나위없는 삶의 활력소. 더욱이 아파트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곳에서는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4월경 김교수와 '숲 해설가 협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노원마을 숲 가꾸기 시민모임"은 이 같은 인식에서 출발했다. 5월21일 상계동 주공12단지를 시작으로 매달 한 차례씩 나무에 대한 특징 등을 설명하는 '현장강의'가 열렸고, '나무이름표 달아주기 행사'도 마련됐다. 주민들의 호응은 기대상이었고 강의장소도 아파트 이외에 가까운 근린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나무이름표 달아주기 행사는 주민들이 나무들과 가까워지는 '가교(架橋)'역할을 톡톡히 했다. 마음에 드는 나무에 자신의 가족이름을 새긴 표를 걸어 나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

'숲 해설가 협회'의 임채란씨(48)는 "아이들이 나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무가 너무 예쁘다며 서로 이름표를 달려고 할 때 보람을 느낀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 중앙일보 2000년 9월 30일

“애들아, 나무와 얘기해 보렴 . . .”

나무사랑 전도사 김재현 교수

대학에서 산림경영 정책을 가르치는 교수가 눈높이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나무와 숲에 대한 사랑'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건국대 산림자원학과 김재현(金才賢, 36)교수. 그는 한달에 한번씩 골목대장이 된다. '나무 이야기'를 무기 삼아 많은 땀 부모들까지 합쳐 80여명씩 모여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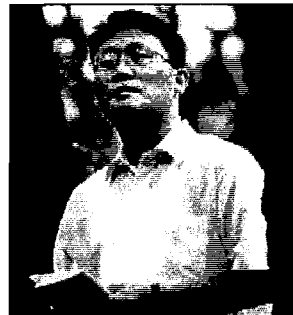
"미스 김 라일락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인데도 미국 학자들이 이름을 붙여 그렇게 됐어요.", "등산로 주변에 많이 자라는 국수나무는 속이 꼭 국수 같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설명이 끝내고 숲교수가 나무에 이름표를 달아보라고 권하면 어린이들은 앞다퉈 "저요, 저요..."를 외친다.

지명 받은 아이는 앞면엔 나무 이름을, 뒷면엔 자기 이름을 적은 이름표를 나무에 단다. 나무가 친구라든가 되는 듯 행동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있다.

올 들어 그는 지난 5월 21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12단지를 시작으로 상계동 일대 아파트 단지 4곳에서 어린이 2백여명에게 나무 친구를 만들어 줬다. "나무에 이름표를 단 아이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나무를 보살피게 되죠." 나무가꾸기 모임에는 고정 회원이 없다.

그때그때 숲교수와 뜻 있는 사람 몇 명이 발품을 팔아 판을 벌이면 원하는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모여 이름표를 달아준다. "나무 가꾸기 만이 아니라 나무를 매개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만일 이를 위해 주민들이 의견을 모은다면 나무를 베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연이나 학연, 혈연 공동체를 넘어 취미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순수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란다. 서울의 나무와 숲은 사람들로 부터 너무 멀리 있어 아쉽다는 말도 덧붙인다.



아이들에게 숲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건국대 산림 자원학과 김재현 교수. 안병식 기자

서울대 임학과를 나와 일본 쓰쿠바(筑波)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숲교수는 1998년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본부'에 참여하면서부터 나무를 잘 가꿀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골몰했다.

"숲 가꾸러 가자"며 사람들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 그러다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어보기로 했다. 엄마와 함께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는 다음달 불암산에서 단풍놀이를 겸해 단합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숲 이야기'로 어린이들에게 자연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전문가임에 하고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지 않고 작은 일에 '지식'을 나눠주는 그는 우직한 나무를 닮아가고 있는 듯하다. /김영훈 기자

○ 조선일보 2000년 12월 5일

“나무 ‘이름표 달기’ 6개월... 삭막한 아파트에 생기가 넘쳐요”

“어린 왕자는 외딴 별나라에 혼자 살았지만 꽃 한 그루를 벗삼아 외롭지 않았답니다. 일요일인 3일 오후 2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 12단지. 아이들과 주부들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원마을 숲 가꾸기 시민모임’의 나무설명회가 열렸다.

건국대 이덕수(이덕수·39) 박사가 전나무를 가리키며 “이건 무슨 나무일까요?”하고 묻자 아이들은 자신 있게 “소나무”라고 답했다. “외관상 비슷하지만 소나무는 잎파리가 2개고 전나무는 5개다”는 설명이 뒤따르자, 아이들은 앞다퉈 전나무 잎파리 수를 세어보더니 금세 고개를 끄덕였다.

이 박사의 설명은 다른 나무들로 이어졌다. “자작나무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 종이 대신 쓰였고, 말안장으로 엮어 쓰기도 해 기마 민족이 좋아했던 나무”, “참나무는 진짜 나무라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졌다”. 20여분간의 설명회가 끝나고 시민모임 관계자들과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를 돌며 나무 이름표 달기 작업을 벌였다. 이름표 아래에는 그 나무를 돌보기로 ‘자매결연’ 맺은 어린이 이름을 함께 기록해두었다. 이 박사는 “이름을 아는 것이 나무사랑, 더 나아가 자연사랑의 첫걸음”이라며 “한창 소유욕이 생길 때인 어린 시절에 자기 나무를 키우면 정서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마을 숲가꾸기 시민모임 회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12단지에서 주민들과 나무에 이름표를 달아주고 있다. /주영훈기자 willy@chosun.com

이현철(상원초등 2년)군은 “나랑 나이가 같은 9년된 목련이 내 나무”라며 “목련꽃이 활짝 핀다는 내년 4월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노원마을 숲 가꾸기 시민모임은 생활 주변에서 방치되는 수목들을 잘 관리해 삭막한 아파트를 생명력 넘치는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난 5월 만들어졌다. 노원구에 살고 있는 대학교수, 지방의회의원, 숲 해설가 모임 회원 등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 대부분이 전·현직 환경관련 시민단체 출신.

이 모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 산림자원학과 김재현(김재현·36) 교수는 “거창한 사회운동보다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생활환경개선활동을 하자는 데 모두 합심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조직을 갖추고 회원수를 늘리기보다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스스로 주변 숲을 가꿀 수 있도록 돕는데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매달 1차례씩 아파트 단지를 찾아 나무 설명회와 이름표 붙이기 작업을 벌였고, 올 겨울에는 나무교실을 열어 아파트 주민들에게 나무관리요령, 나무상식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을 나무전문가로 양성해 각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주변 나무들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노원구만 해도 178곳이나 되는 아파트 단지를 매년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시골에서 지저귀는 맑은 새소리를 벗삼아 뛰놀던 우리 어릴 적 모습을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바람”이라며 “노원마을이란 명칭도 마을 공동체를 지향하자는 의미에서 지어졌다”고 설명했다. /나지홍기자 willy@chosun.com